

“장갑 바꾸고 분위기 바꿨죠”

강성훈, PGA 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2타차 ‘준우승’ 2019-2020 시즌 최고 성적... “어려운 홀에서 버디가 큰 도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강성훈(32·사진)이 강호들이 출전한 특급 대회에서 올 시즌 개인 최고 성적을 올리며 자신감을 재충전했다.

강성훈은 17일(한국시간) 끝난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에서 9언더파 275타를 쳐 공동 2위에 자리했다. 애덤 스콧(호주)에 2타가 뒤져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위기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상위권에 오르는 기량을 뽐냈다.

작년 5월 바이런 넬슨 대회에서 정상에 올라 PGA 투어 첫 승을 기록한 강성훈은 제네시스 대회 준우승으로 70만3700달러

(약 8억3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강성훈은 1번홀(파5)에서 이글을 잡았지만 2번홀(파4)에서 더블보기를 하는 바람에 타수를 까먹었다.

이어 4번홀(파3)과 5번홀(파4)에서 연속 보기를 하면서 무너지는 듯했다.

강성훈은 PGA 투어 국내 홍보를 담당하는 스포티즌을 통해 “출발은 좋았는데 티샷 실수가 너무 많이 나와 타수를 오히려 까먹었다”며 “장갑을 바꿔 끼면서 느낌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강성훈

은 어려운 홀로 꼽히는 11번홀과 17번홀(이상 파5)에서 버디를 잡아내며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갔다.

강성훈은 “어려운 홀에서 페어웨이를 잘 지킨 것이 버디로 이어졌다”며 “바람이 많이 불어 어려웠지만 어차피 모두에게 힘든 날이니 정신만 놓지 않고 경기를 하자고 생각했다”고 소감을 말했다.

격전을 치른 강성훈은 한 주 휴식을 취한 뒤 27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 비치 가든스에서 개막하는 PGA 투어 혼다 클래식에 출전한다. 연합뉴스



KBO리그 평균연봉 1억4448만원

롯데 이대호 25억 ‘연봉킹’ 최고령 선수는 LG 박용택

상승 곡선을 긋던 한국프로야구 평균 연봉이 2020년 감소세로 돌아섰다.

KBO는 17일 2020년 KBO리그 소속선수 등록과 연봉 현황을 발표했다.

외국인 선수와 신인을 제외한 선수들의 2020년 평균 연봉은 1억4448만원이다.

2019년 평균 연봉 1억5065만원보다 4.1% 줄어든 금액이다. 2018년 평균 연봉 1억5026만원보다도 낮다.

KBO리그 엔트리 등록 기준인 구단별 상위 28명의 합산 평균 연봉(외국인 선수 제외)도 2억3729만원으로 지난해 2억5142만원보다 1413만원(-5.6%)이 줄었다.

“과한 지출”을 줄이고,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는 구단이 늘어나는 추세가 연봉 협상에서도 반영됐다.

2020년 평균 연봉 1위는 NC 다이노스다. NC의 평균연봉은 지난해 1억6576만원에서 거의 변화가 없는 1억6581만원이다.

지난해 이 부문 1위였던 롯데 자이언츠가 평균연봉을 1억9583만원에서 1억6393만원으로 낮추면서 2위로 밀려났다.

평균 연봉이 가장 많이 오른 구단은 LG 트윈스였다. LG의 평균 연봉은 1억3486만원에서 19.7%가 된 1억6148만원이다.

SK 와이번스, 한화 이글스, KIA 타이거즈, 롯데 자이언츠의 평균 연봉은 크게 줄었다.

SK는 고액 연봉자 김광현이 미국 프로야구에 진출해 평균 연봉 삭감 폭이 20.2%나 됐다. 하위권에 그친 한화와 KIA, 롯데도 15% 이상 평균 연봉을 삭감했다.

하지만 연봉 협상 테이블에 한과만 불지는 않았다.

역대 연봉자는 지난해 156명에서 161명으로 5명 늘었다. 역대 연봉 선수는 신인과 외국인 선수를 제외한 512명 중 31.4%를 차지한다.

이대호(롯데)는 25억원으로 4년 연속 KBO리그 최고 연봉자 자리를 지켰다. 그는 롯데와 2017년 4년 총 150억원의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했다. 계약금은 50억원이고, 4년 동안 25억원씩 받는다.

투수 부문 1위는 양현종이다. 23억을 받는 양현종은 연봉 부문 전체 2위, 투수 1위에 올랐다.

2020년 KBO리그 최고령 선수는 박용택(LG 트윈스)이다.

박용택의 1월 31일 등록기준 나이는 만 40세 9개월 10일이다. 올해 KBO리그 선수 중 유일할 1970년대(1979년) 태생이다.

최연소 선수는 kt wiz 신인 투수 이강준이다. 2001년 12월 14일에 태어난 이강준은 박용택과 22년 이상 차이가 나는 만 18세 1개월 17일의 나이로 KBO에 등록했다. 연합뉴스

흥민이는 ‘흥’이 난다

에스턴 빌라전 역전·결승골 아시아 최초 ‘EPL 50골’ 달성

아시아 출신 선수로는 처음으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통산 50골을 돌파한 손흥민(28·토트넘 홋스퍼)이 팀 동료와 팬, 한국 국민의 도움 덕이라며 공을 돌렸다.

손흥민은 16일(한국시간) 영국 버밍엄의 빌라 파크에서 열린 2019-2020시즌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 에스턴 빌라와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전반 추가 시간 2-1을 만드는 역전골과 후반 추가 시간 결승골을 터뜨려 토트넘에 3-2 승리를 안겼다.

이날 멀티 골로 손흥민은 정규리그 3경기과 잉글랜드축구협회(FA) 2경기를 더해 5경기 연속골 행진을 이어갔다. 5경기 연속 득점은 손흥민의 프로 데뷔 후 처음이다.

아울러 손흥민은 2015-2016시즌 잉글랜드 진출 이래 프리미어리그에서 통산 득점을 50골을 넘어서는 것은 아시아인으로는 손흥민이 최하다.

손흥민은 경기 후 구단 홈페이지에 실린 인터뷰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50골을 넣었지만, 팀과 서포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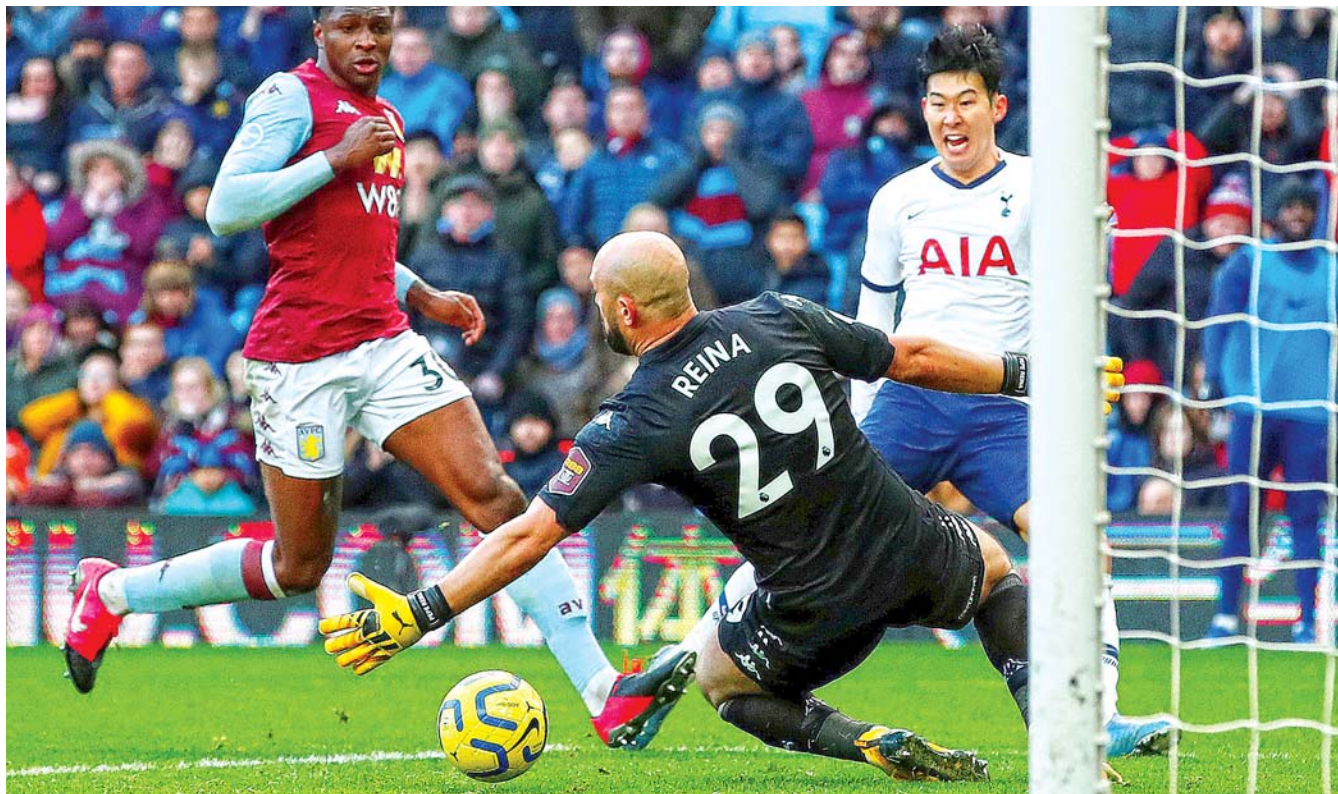
스가 없었다면 불가능 했을 것이다”라며 자세를 낮췄다.

이어 “이 기분을 팬, 한국 국민, 동료들과 나누고 싶다”면서 “도움을 줬고 감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손흥민은 이날 승리에 대해 “정말 대단하다. 승리는 늘 긍정적이지만

오늘처럼 몇 초를 남기고 비기는 상황에서 이긴 것은 더 특별하다”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끌려가다가도 만회하곤 했다”면서 “이는 우리가 아주 좋은 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팀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토트넘 홋스퍼 손흥민(가운데)이 16일(현지시간) 영국 버밍엄 빌라 파크에서 열린 에스턴 빌라와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경기 중 결승골을 터뜨리고 있다. 손흥민의 결승골을 앞세워 토트넘이 3-2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토트넘은 팀 3연승을 달성했다. 연합뉴스

10년 만에 배트 잡은 김광현 첫 타격 훈련... “어렵네요”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사진)이 10년 만에 배트를 잡았다.

‘타격’은 2020년 김광현 앞에 놓인 새로운 숙제다.

미국프로야구 내셔널리그는 지명 타자 제도가 없다. 투수가 타석에 선다. KBO리그에서 단 3차례만 타석에 섰던 김광현은 올해 자주 타석에 들어설 수 있다.

세인트루이스 지역 언론인 세인트루이스 포스트 디스패치는 17일(한국시간) ‘김광현의 첫 공식 타격 훈련’ 소식을 전했다.

김광현은 이날 배팅 케이지에 들어가 타격 훈련을 했다. 번트도 시도하고, 스윙도 했다. 김광현이 타격 훈련 뒤 세인트루이스 포스트 디스패치에 밝힌 소감은 “타격은 어렵다”였다.



그는 “10년 만에 배트를 잡았다. 오늘 타격 훈련은 정말 어려웠다”며 “일단 공을 맞아야 한다. 지금 당장 훈련을 치기는 어렵다”고 웃었다.

지난해 세인트루이스 투수들의 타율은 0.142로 내셔널리그 4위였다.

세인트루이스는 당장 김광현에게 ‘타격 능력’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김광현이 선발 한 자리를 꿰차면, 타석에 자주 들어서야 한다.

안산공고 시절 김광현은 에이스이자 강타자였다. 김광현은 고교 3학년 때 41타수 17안타(타율 0.415), 1홈런, 8타점을 올렸다. 연합뉴스

상 장
제주혁신성장대상
2019년 11월 5일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 허영호

제주도 에너지공사

벤처기업

인공지능 기술보유

한화 Q-CELL

나눔에너지는 제주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태양광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 현대에너지 솔루션 소프트웨어 계약 성사
- 제주지역 단일공사 1MW급 최초 스크류공사 시행 (시공성 우수, 안정성 우수_인발테스트 리포트 결과 기준치 대비 1.5배 강함)
- 중소벤처기업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테크노파크 주관 제주지역 우수사례업체 선정, 제주혁신성장대상

“도내 1 금융권 최소 금리(2% 후반 ~ 3%초반대)로 금융까지 해결해 드립니다.”

따뜻한 에너지를 만드는 기업,
나눔에너지
인공지능보유 / 벤처인증기업 / 고용우수기업

2019.06
제주도청 고용우수기업 선정 / 한화 큐셀 (Q-CELL) 제주도 큐파트너 협력기업

2019.04
벤처기업 인증 획득

2018 - 19
2년연속 제주도 에너지공사 협력사 선정

(주) 나눔에너지 | 제주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211호 시공문의 | TEL. 064 - 745 - 0420 FAX. 070 - 8812 - 0420